



산업표준화와 인증제도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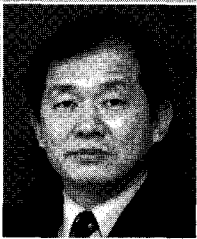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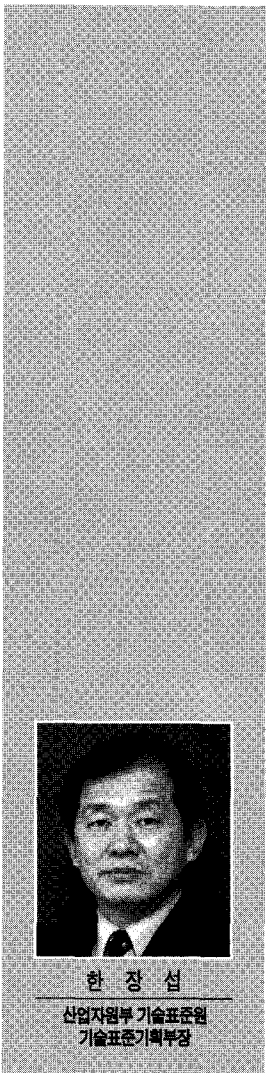
산업표준화 제도는 광공업품과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 품질의 고도화, 생산효율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함으로써 거래를 단순·공정하게 하고,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표준화 제도의 도입은 1949년 '농산물검사법'을 제정하면서 구체적인 규격과 기술기준의 명문화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 산업표준화 제도는 1961년 '공업표준화법'이 제정·공포되고, 상공부에 표준국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산업규격(KS)의 제정·보급과 KS 표시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표준 보급 확대의 전기를 마련하고,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국가규격 준수와 KS 표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KS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산업표준이 되었다.

현재 KS는 광공업제품 위주에서 정보산업과 서비스 산업 등 16개 분야로 범위가 확대·보급되고 있으며,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총 18,465종이 제정되어 있다. 이중 한복 등 한국에만 있는 고유 규격을 제외한 KS 규격 10,280종 중 99.3%가 국제표준과 일치화되어 있다.

KS 규격(KS A ISO/IEC Guide 2)의 정의에 따르면 인증(認證, Certification)은 "제3자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신뢰를 주는 진술을 발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불량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보건 위험 및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표준의 확산, 신기술개발유도, 에너지의 효율적인 유통 등 바람직한 산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과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인증제도에는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이 있다. 강제인증은 특정



한 장 섭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획부장

한 제품이 정해진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생산·유통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위반시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제도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제작인증 등 불량품 발생률이 높거나 제품의 품질이 국민의 안전, 건강, 재산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들이 강제인증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에서 21개 분야 23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자율인증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나 강제인증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되거나 인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채택되고 있다. 임의인증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 인증’이나 환경부의 ‘환경 마크’ 등 법령에 의한 23개 인증 이외에도 민간단체에서 임의로 시행하는 다수의 인증이 있다. 이중 ‘KS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14개 법령에 의한 강제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각국의 인증제도는 나름의 특성이 있다.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표준이 강제로 적용되는 강제규정이고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인증도 국가표준 인증으로 수렴된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가전제품, 자동차, 의료용품 등이 CCC 마크로 통합되어 있다. 유럽 국가들도 지역통합 과정에서 표준화 제도를 정비하여 완구류, 압력용기 등 18개 품목군에 대해서 유럽 29개국(EU 25개국 포함)에서 통

용되는 CE 마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기용품, 자동차, 무선기기 등 분야별로 각각 별개의 인증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큰 혼란이 없는 것은 모든 인증제도의 근간에 산업표준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산업표준(KS)은 임의인증제도가기는 하지만, KS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14개 법률에 의한 강제검사 제도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14개의 인증제도가 KS 표시인증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인증제도에서 국제표준과 일치화된 KS 규격을 인증기준으로 채택하거나 KS 규격과 동일한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04년 8월 말 전체 기술기준 중 71.6%).

따라서 KS 표시 인증제품은 다른 인증들과도 쉽게 호환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표준화 제도는 국내의 각 인증제도 운영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국내 인증제도 통합의 실마리도 제공하고 있다. 복잡하고 난립된 인증제도의 통합은 국제무역 관행상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의 시각에서는 복잡한 인증제도가 무역장벽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배경이 다른 공산권 국가나 유럽의 CE 마크 같은 통합 인증제도를 단시간에 구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인증제도 전반의 기반이 되는 산업표준화 제도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간다면 유럽의 CE 마크와 같은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